

설날 가정에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가 235장 다같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들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말 씬 행 2장 42~47절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초대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행 2:42-47)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은 교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교회는 가정입니다. 또 가정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이면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단 어들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의 하나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곤고할 때도 평화로울 때도 기도예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지혜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대면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축복된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족 간의 소통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훨씬 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는 소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가족 간의 소통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다. 가족 간의 소통이 있다 보니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가족 간의 소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에만 담아 두지 않고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형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본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부러워하여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냄으로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족 간의 소통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소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소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